

오중해인(五重海印)에 대한 재고찰

황서광

(주)에프씨네스트 상임고문

skh5612@hanmail.net

I. 머리말

II. 업사(儼師)오중해인

III. ‘유운(有云)’오중해인

IV. ‘화상지의(和尚之意)’오중해인

V. 맺음말

요약문

오중해인은 『화엄경』의 내적직관의 견지에서 부처 교설의 진의를 중층적으로 꿰뚫고 있는 일승론의 백미이다. 『대기』는 오중해인을 차용하여 『법계도』 해석의 중요한 증거 틀로 삼았다. 『대기』에서 차용한 오중해인은 업사오중해인, ‘유운’오중해인, ‘화상지의’오중해인이다.

업사오중해인은 『법계도』의 형식적 체계를 해석하여 『대기』의 법계도관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된 교학이다. 업사오중해인은 증분을 네 단계로 파악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화엄 일승의 증·교분 이중 체계를 오중으로 중층화하였다.

‘유운’오중해인은 7언30구를 해석한 교학으로서 『대기』의 근기론과 교판론의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근기론에서는 제3중해인을 보현기(普賢機), 제4중해인을 위광(威光)·선재(善財), 제5중해인을 소류소목기(所流所目機)로 해석하였다. 연기분에 위치한 ‘십불보현대인경(十佛普賢大人境)’은 증분과 연기분의 통합 결론이며 제3중해인은 ‘보현대인경’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그런데 보현은 팔회(八會) 가운데 ‘교화를 돕는 뜻’을 기준으로 하면 근기가 되지 않는다. 위광과 선재, 소류소목기는 보현이 교화를 돕는 뜻에서의

근기들이다. 교판문에서는 제3중해인을 불공(不共)별교, 제4중해인을 여의교(如意教), 제5중해인을 동교 혹은 소목별교로 해석하였다. 불공별교의 ‘불공’은 제4중해인·제5중해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교와 별교를 아우르는 여의교는 법계도인의 독창적 해석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판 개념이다. 소목별교의 ‘소목’은 일승을 기준으로 한 명목(名目)을 가리킨다.

‘화상지의’ 오중해인은 ‘해인’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이타행4구를 7언30구의 또 다른 축약으로 간주하여 오중으로 해석한 교학이다. 제3중해인은 능화불(能化佛)이 보현기를 이의 되게 하려고 ‘십보법(十普法)의 보배를 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대기』는 십보법을 해인 중에 나타나는 삼세간(三世間)으로 정의하였다. 제4중해인은 여의교의 주인(朱印)이 근기의 굴곡에 들어맞는 것으로, 제5중해인은 언설의 법을 통하여 근기들이 신(信)·해(解)·행(行)·증(證)을 일으키게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주제어

엄사오중해인, ‘유운’ 오중해인, ‘화상지의’ 오중해인, 보현, 위광·선재, 소류소목기, 여의교

I. 머리말

학문의 세계는 엄밀해야 한다. 한 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엄밀한 말이다. 원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합리적 해석에 우선해야 한다는 상식도 이때문이다. 호리유차 천지현격(毫釐有差 天地懸隔)-털끝만큼이라도 차이가 있으면 하늘과 땅 사이만큼 벌어지나니-이라고 하였다.¹⁾ 오해는 또 다른 오해를 부르기 십상이다. 오중해인에 대한 기존 연구²⁾가 소략(少略)하고 원전의 정확한 이해와 다소 거리가 있다고 한다면, 해석을 중시한 최근의 연구³⁾는 그 거리

1) 『信心銘』(『大正藏』48, p.376中).

2) 佐藤厚, 「『대기』의 오중해인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44卷2號(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96), pp.286-288 ; 佐藤厚, 「新羅高麗華嚴敎學の研究-均如『一乘法界圖圓通記』を中心として-」, 博士學位論文(東洋大學校大學院, 1998), pp.268-275 ; 김천학, 『균여화엄사상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서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2006), pp.154-168, pp.179-180.

3) 이미선(정우), 「『대기』의 오중해인에 대한 소고」,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5집(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pp.181=215.

가 늘어난 형국이다.

해인은 다라니와 함께 의상계 화엄학⁴⁾의 양대 특징으로 꼽히고 있으며⁵⁾ 그 가운데서도 오중해인은 『화엄경』의 내적직관의 견지에서 부처 교설의 진의(眞意)를 증층적으로 꿰뚫고 있는 일승론의 백미(白眉)이다. 오중해인은 또한 『대기』의 『화엄일승법계도』(이하 『법계도』)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증거 틀이기도 하다. 하지만 오중해인은 그 기본이 되는 작자와 명칭에서부터 오해가 생기고 있다. 본문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몇 가지를 시정한다.

첫째, 무심코 사용하는 ‘『대기』의 오중해인⁶⁾’이라는 관용구가 던져줄 수 있는 오해이다. 이 관용구는 비전공자에게 마치 『대기』의 저자가 오중해인의 작자처럼 오인(誤認)시킬 개연성이 크다. 『대기』의 저자는 『법계도』를 해석하기 위한 교학적 개념으로서 오중해인을 차용했을 뿐이다. 따라서 정확하게는 ‘『대기』가 차용한 오중해인’이 맞다.

둘째, 『대기』가 차용한 오중해인은 그 명칭이 상이하다. 원전에 의거하면 지엄(智儼, 602~668)의 엄사오중해인(儼師五重海印),⁷⁾ 실명을 밝히지 않은 ‘유운(有云)’오중해인,⁸⁾ 의상(義湘, 625~702)을 지칭한 것으로 추정되는 ‘화상지의(和尚之意)’오중해인이다. 이를 ‘3중의 오중해인’으로 명명하여 대표화한 것은⁹⁾ 어디까지나 복잡한 내용의 이해를 돕기 위한 방편이다. 그런데 이 ‘3중’이 와전되어 본래의 명칭은 사라지고 단순히 ‘첫 번째·두 번째·세 번째 오중해

4) 佐藤厚, 「의상계 화엄학파의 사상과 신라불교에서의 위상」, 『보조사상』 제16집(서울: 보조사상연구회, 2001), p.126에서 의상계 화엄학이란 의상(義湘, 625~702)의 『법계도』를 원점으로 형성된 화엄교학을 다른 계통의 교학과 구별하기 위해 현대 학자들에 의해 만들어진 개념이고 시기적으로는 통상 신라 의상이 당(唐)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670년부터 973년 고려 균여의 입적까지 약 300년을 그 범위로 한다고 규정하였다.

5) 木村清孝, 「智儼と義湘系の華嚴思想-五海印說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1卷 2號(東京: 日本印度學佛敎學會, 1973), p.323.

6) 佐藤厚, 앞의 논문, 「『大記』の五重海印說について」, p.286; 이미선(정우), 앞의 논문, p181.

7) ‘엄사오중해인’은 현존 지엄의 저작에는 나오지 않고 『대기』에만 전승되는 교학이다.

8) 『대기』가 증시한 ‘유운’오중해인의 ‘유’가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가, 왜 밝히지 않았는가는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향후 과제로 미룰 수밖에 없다.

9) 전해주, 『의상화엄사상사연구』(서울: 민족사, 1993), p.167; 『법계도기총수록』, 전해주 역(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p.36.

인¹⁰⁾으로 지칭하거나 심지어 아예 구분 없이 ‘오중해인’으로 통칭하기도 한다.¹¹⁾ 『대기』가 차용한 목적과 용도가 각기 다른 이들 오중해인은 마땅히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되어야 한다.

셋째, 오중해인은 각기 세부 명칭을 갖고 있다. 업사오중해인은 망상(忘像)해인·현상(現像)해인·불외향(佛外向)해인·보현입정관(普賢入定觀)해인·보현출정재심중급현어언(普賢出定在心中及現語言)해인이다. ‘유운’오중해인은 영불현(影不現)해인·영현(影現)해인·제3중해인·제4중해인·제5중해인이다. ‘화상지의’오중해인은 영리(影離)해인·영현해인·제3중해인·제4중해인·제5중해인이다. 이 세부 명칭도 혼용되고 있다. 특히 ‘유운’오중해인의 영불현해인과 영현해인은 각각 『법계도』 반시(盤詩)의 증분 제1구와 제2구에 배석(配釋)되었고 제3구와 제4구는 각각 제1구와 제2구의 해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정확하게 반영하지 않고 있다.¹²⁾

넷째, 반시 7언30구를 업사오중해인으로 배석하는 오류이다.¹³⁾ 『대기』는 업사오중해인을 차용하여 『법계도』의 형식적 체제인 제명(題名)에만 배석하였을 뿐이다. 7언30구를 배석한 것은 ‘유운’오중해인이다.

II. 업사오중해인

『대기』는 ‘업사오중해인’을 차용하여 자신의 법계도관(法界圖觀)을 드러내고 있다. 즉 『법계도』 제명을 일승법계·도·합시일인·오십사각·이백일십자로 세분하고, 각각에 대하여 망상해인·현상해인·불외향해인·보현입정관해인·보현출정재심중급현어언해인으로 배석한 것이다.¹⁴⁾ 이것은 표면적으로 『법

10) 이미선(정우), 앞의 논문, p.181.

11) 佐藤厚, 앞의 논문, 「『대기』의五重海印說について」, p.286.

12) 이미선(정우), 앞의 논문, p.193.

13) 佐藤厚, 앞의 논문, 「『대기』의五重海印說について」, p.287; 佐藤厚, 앞의 논문, 「新羅高麗華嚴敎學の研究-均如『一乘法界圖圓通記』を中心として-」, pp.269-270.

계도』의 제목을 주기(註記)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주기가 아니라 『법계도』의 형식적 체제를 엄사오중해인으로 해석한 『대기』의 법계도판이다. 왜냐하면 『법계도기총수록』(이하 『총수록』)에는 다시 ‘오십사각’¹⁵⁾과 ‘이백일십자’¹⁶⁾에 대한 『대기』의 주기가 그 일반적 형식인 ‘○○者, ○○’의 형태로 연이어 나타나기 때문이다. 또한 『대기』는 특이하게도 ‘7언30구’에 대해서도 주기하고 있어서,¹⁷⁾ 『대기』가 주석한 『법계도』 판본의 제목이 ‘일승법계도 합시일인 오십사각 이백일십자 칠언삼십구’였을지도 모른다는 의구심을 자아내게 한다.

엄사오중해인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망상해인으로부터 보현입정관해인까지와 보현출정재심중급현어언해인이다. 전자가 불가설의 세계라면, 후자는 가설의 세계라고 할 수 있다. 이를 증분과 교분으로 표현할 수도 있다. 엄사오중해인은 결국 증분을 네 단계로 파악한 것이다. 이는 『대기』가 엄사오중해인을 원용하여 일승의 세계를 세분화한 것으로서 부처 교설의 진의에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한 교학적 노력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전통적인 화엄학의 증·교분 이중 체계에서 탈피하여 오중의 일승론을 구축하게 된 것이다.

『대기』의 오중해인 해석 중 눈에 띄는 특징은 망상해인만 해석이 없다는 점이다. 『법기』가 『법계도』 서문의 ‘의리거교(依理據教)’ 중 ‘리’를 망상해인으로 주기하고, 부처의 마음 가운데 삼세간을 증득하지만 증득한 마음은 하나로서 무분별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¹⁸⁾ 혹여 그 원인이 ‘일승법계’를 언망절여(言忘絶慮)의 세계라고 생각했기 때문은 아닌지 추측해 보지만, 그 의도를 정확히 알 수 없다. 또한 『법계도』 증분에 대하여 삼기 중 『대기』의

14) 佐藤厚, 앞의 논문, 「『大記』の五重海印説について」, p.286에서 오중해인은 『화엄경』 초회의 양상을 다섯 단계로 파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화엄의 법문이 비로자나불의 자내중 세계로부터 세워져 보현이 그것을 삼매 내에서 감득하여 출정한 후에 실시한다는 것이다.

15) 『法界圖記叢髓錄』 卷上1(『韓佛全』6. p.771上), “五十四角者 下文云.”

16) 上同(『韓佛全』6. p.771上), “二百一十字者 五周因果.”

17) 上同(『韓佛全』6. p.771中), “七言三十句者 前之法喻各十 并本十支.”

18) 上同(『韓佛全』6. p.774中), “依理據教者 理則忘像海印 謂佛心中訂三世間 而佛訂心一無分別也.”

주기만 없다는 사실과 동일한 맥락으로 추측해 볼 수도 있다.

현상해인은 상(像)으로 해석하고, 이를 60권본 『화엄경』과 『화엄경탐현기』(이하 『탐현기』)를 인용하여 교증하였다. 즉 「여래명호품」에서 “곧 그 ‘형상[像]’대로神通력을 나타냈다”¹⁹⁾와 이에 대한 『탐현기』의 해석으로서 “그 생각한 바와 같이 위의 124질문 및 아래 제6회에 이르기까지 설한 법문으로 이 질문에 답한 것이 모두 여래의 법계신(法界身) 중에 그 형상을 원명돈현(圓明頓現)하지 않는 것이 없는 것과 같다. 운운. 아래의 경에 이르기를 청정법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형상이 없다”²⁰⁾를 인용하였다. 그리고 인용문은 내증과 외화(外化)에 두루 통하지만 지금은 내증을 기준으로 분배한 것이라고 해석하였다.²¹⁾

「여래명호품」에서 형상이란 보광법당에 모인 모든 보살들의 세존에 대한 염원을 가리키며, 법장(法藏, 643~712)은 이를 ‘염문(念問)’으로 명명하고 124질문으로 구분한 유(裕), 범(梵) 법사의 설을 따라 해석하였다.²²⁾ 즉 124질문에 대한 대답이 제2회부터 제6회까지의 법문이며 모두 여래의 법계신 중에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리고 ‘아래의 경[下經]’으로 인용한 “청정법신 가운데 나타나지 않는 형상이 없다”²³⁾는 「입법계품」 말미에서 보현이 부처를 찬양한 계송 중의 한 구절이다. 『탐현기』에서는 이를 석가화신의 공덕 찬양 중 신업(身業)의 해현이능유(海現二能喻) 가운데 현영(現影)으로 주석하였고²⁴⁾ 또한 현담의 제목 해석 중 품명(品名)에서는 ‘정안(淨眼)’의 세 가지 뜻 가운데 두 번째인 현상(現像)을 들고 「입법계품」의 상기 구절을 인용하여 교증하였다.²⁵⁾

19) 『大方廣佛華嚴經』卷4(『大正藏』9, p.418中), “即如其像 現神通力.”

20) 『華嚴經探玄記』卷4(『大正藏』35, p.169中), “如其所念如 上一百二十四問及下至第六會來所說法門答此問者 皆於如來法界身中無不圓明頓現其像... 下經云清淨法身中無像而不現故也.”

21) 『法界圖記叢髓錄』卷上1(『韓佛全』6, p.768中), “此文通於內證外化 今約內證配也.”

22) 『華嚴經探玄記』卷4(『大正藏』35, p.168中), “初念請 二念問 三念現 問中裕梵等法師離為一百二十四問.”

23) 『大方廣佛華嚴經』卷60(『大正藏』9, p.788上), “清淨法身中 無像而不現.”

24) 『華嚴經探玄記』卷20(『大正藏』35, p.492上), “第四譬如下八偈半喻顯三業中 初五偈明喻身業 一幻師喻 二月現四德喻 一體圓淨 二示增減 三應淨心 四映二乘 三海現二能喻 一出寶 二現影.”

25) 『華嚴經探玄記』卷1(『大正藏』35, p.122上), “淨眼三義... 二現像義 況智正覺 下文云 清淨法身無像而不現.”

『법기』는 상기 ‘의리거교’ 중 ‘교’를 주기한 현상해인에 대하여 부처가 증득한 삼세간법이 각각의 자리를 움직이지 않고 성품이 증도에 있어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了了現現]’으로 해석하였다.²⁶⁾ 이는 『십구장』이 해석한 현상해인과 일치하며²⁷⁾ 기본적으로 『법계도』의 총석인의(總釋印意)가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반면에 『대기』가 의존한 『탐현기』의 형상에 대한 해석은 124질문으로 요약되고, 유·범 법사의 교설에 따라 이 질문을 법신의 자체행, 보신의 수행을 일으키는 행, 방편신의 평등행으로 구분하였다.²⁸⁾ 따라서 『법기』의 현상해인은 삼중세간 전체에, 『대기』의 현상해인은 불보살의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엄사오중해인 근처에 부처의 자내증 세계인 망상해인과 현상해인이 있고 나머지 해인도 이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은 필지의 사실이다. 불교는 부처의 깨달음에 그 시원(始原)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그 망상·현상해인은 부처의 대자비심인 불외향해인을 거쳐 보현에게 가피될 때 의미를 갖는다. 엄사오중해인에서 부처의 세계는 이를 언설하는 보현을 통하여 비로소 가설의 영역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따라서 가피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불외향해인과 보현입정관해인은 부처와 보살을 잇는 가교가 되고 있다. 이 과정은 불외향해인의 해석에서 잘 드러난다. 즉 불외향심인 ‘인(印)’과 ‘보현의 큰 기쁨이 안으로 향하는 마음[普賢大機內向心頭]’인 ‘시(詩)’가 그윽하게 합쳐진다는 것이다.²⁹⁾

보현입정관해인에 대해서 『대기』는 부처와의 관계를 기준으로 보현내증이 갖는 의미를 두 가지로 해석하였다. 첫째는 불보현문에 입각하여 “보현이 안

26) 『法界圖記叢髓錄』 卷上1(『韓佛全』6. p.774中), “教則現像海印 謂佛所訂三世間法 不動各位 性在中道 了了現現也.”

27) 『十句章圍通記』 卷下(『韓佛全』4. p.59下), “喻如不動水中无遺現一切像 其現像亦不動 佛證心中三世間法 現顯不動自位 性在中道 此爲教也.”

28) 『華嚴經探玄記』 卷4(『大正藏』35, p.168中), “謂初十問法身自體之行 中間一百問報身起修之行 後十四問方便身平等之行.”

29) 『法界圖記叢髓錄』 卷上1(『韓佛全』6. p.768中), “合詩一印 配佛外餉海印 謂詩表普賢機 印表佛外向心 佛外向心印 冥合普賢大機內向心頭故也.”

을 향하면 십불이고 십불이 밖을 향하면 보현이다”라는 해석이다. 말하자면 보현의 입정은 비단 불외향해인뿐만 아니라 망상·현상해인까지도 증득한다는 것이다. 둘째는 ‘근기별로 구분 지음[就機作區門]’을 기준으로 “불외향에서 오직 ‘일부분[一分]’만을 깨달을 뿐이니 ‘원만하지 않음[未滿]’ 때문이다”라는 해석이다.³⁰⁾ 미만은 수분(隨分)의 뜻으로,³¹⁾ 일반적으로 원만의 상대어로 사용된다. 전자가 원만을 전제로 한 부처와 보현의 증득 동질성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차별성에 중점을 둔 해석이라고 할 수 있다. 차례(次第)에 기반을 둔 엄사오중해인에서 보현입정관해인은 후자의 의미로 해석되었다. 『대기』는 그 이유를 보현의 여래정장삼매 가운데 오교 내지 무량승의 근성(根性)의 생숙(生熟)과 법계의 모든 법의 ‘모습[頭角]’이 단박에 나타나기 때문으로 보았다.³²⁾

보현출정재심증급현어언해인은 오주인과(五周因果) 등의 법을 분시(分示)하여 문자언어를 시설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³³⁾ 오주인과는 소신(所信)·차별(差別)·평등(平等)·성행(成行)·증입(證入)의 다섯 인과를 말하며, 『탐현기』에서 60권본 『화엄경』의 종취십설(宗趣十說) 가운데 일곱 번째인 법계인과설에 의거해 34품 전체를 십사오대(十事五對)로 구분하여 배석한 것이다.³⁴⁾ 따라서 『대기』는 어언해인에 『화엄경』 전체가 집약되어 있다는 것을 오주인과로써 상징하고, 동시에 이를 통하여 비로소 ‘부처의 가르침[佛敎]’이 불가설에서 ‘어언’이라는 형태의 가설로 전환되었음을 시사하고 있다.³⁵⁾

30) 上同(『韓佛全』6. p.768中), “謂善賢內訂有二義 一若約佛善賢門 則善賢入定 非但窮訂外向心印 亦乃通訂初二海印 以善賢向內則十佛 十佛向外則善賢故 二若約就機作區門 則於佛外向 唯訂一分以未滿故.”

31)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5中), “隨分者 未滿義故.”

32) 『法界圖記叢髓錄』卷上1(『韓佛全』6. p.768中), “今約後義 於此淨藏定中 五教乃至無量乘根性生熟 及法界諸法頭角頓現故也.”

33) 上同(『韓佛全』6. p.768中-下), “於此海印分示五周因果等法 施設文字語言故也.”

34) 『華嚴經探玄記』卷1(『大正藏』35, p.120上-中).

35) 김천학, 앞의 책, p.160에서 “『대기』는 ‘도(圖)’라고 하는 것이 신림의 의도라고 인용한다. 초해인에 해당하는 ‘일승법계’에 대해서 신림은 능소불가득처로 설명한다. 따라서 초해인만큼은 중층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했지만, 엄사오중해인 가운데 보현출정재심증급현어언해인으로 배석된 ‘도’와 신림의 의도와는 전혀 관련 없는 사안이며 능소불가득처로 해석한 것도 ‘일승법계’가 아니라 ‘일’이다.

III. ‘유운’ 오중해인

1. 반시(盤詩) 7언30구 배석

『대기』는 『법계도』 도인(圖印)의 문장에 ‘많은 뜻의 해석[多義釋]’이 있음을 소개하고, 그 가운데 ‘누구의 해석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有云]’ 오중해인을 통하여 7언30구를 배석한 사례를 전하고 있다. 실명을 거론한 표훈(表訓)과 진정(眞定)의 배석과는 대조적인 대목이다. 『대기』는 이 ‘유운’ 오중해인을 『법계도』를 해석하는 중요한 잣대의 하나로 삼고 있으며, 특히 ‘유운’ 오중해인에 의거하여 형성된 근기론과 교판론은 독특한 면모를 보이고 있다.

‘유운’ 오중해인은 엄사오중해인으로 배석하면 망상해인부터 보현입정관해인까지는 문구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모두 통으로 분배하는 것이고 보현출정재심중급현어언해인을 기준으로 다시 오중을 갖춘다는 것이다.³⁶⁾ 즉 7언30구 중 증분4구는 초이중해인(初二重海印), 연기분14구는 제3중해인, 이타행4구는 제4중해인, 수행방편4구는 제5중해인으로 배석하고 마지막 4구는 『법계도』의 배석과 동일하게 ‘수행으로 얻는 이익[修行所得之益]’으로 해석하였다.

증분4구 가운데 다시 제1구를 영불현해인, 제2구를 영현해인으로 배석하고, 제3구는 제1구에 대한 해석, 제4구는 제2구에 대한 해석으로 간주하였다.³⁷⁾ 그리고 연기분에서는 수행자의 마음에 따라서 계(界), 종(種), 해(海)를³⁸⁾ 나누지만 증분에서는 법계, 해인, 법성이 동일량(同一量)임을 천명하였다.³⁹⁾ 영현은 ‘영현일체수(影現一切水)’⁴⁰⁾, ‘영현일체세계(影現一切世界)’⁴¹⁾, ‘영현일

36) 『法界圖記叢錄』卷上1(『韓佛全』6, p.775上), “就圖印文有多義釋 有云 以嚴師五重海印配釋者 初四重則不分文句故 皆通配也 約第五重亦具五重.”

37) 上同(『韓佛全』6, p.775上), “則初訂分四句 初二重海印也 次眞性下緣起分十四句 則第三重海印也 次能人下利他行四第重海印也 次是放行者下 修行方便四句 則第五重海印也 後四句 是修行所得之益也 初四句中 初一句影不現海印 次一句影現海印 次一句釋前法性無二相也 後一句 釋前諸法本來寂也.”

38) 앞의 책, 전해주 역, p.96의 각주 141)에서 뒤의 문맥을 고려하여 ‘계’는 법계, ‘종’은 법성, ‘해’는 해인으로 추정하였다.

39) 『法界圖記叢錄』卷上1(『韓佛全』6, p.775上-中), “緣起分中分界種海各別配者 以隨行者之心故 若證分則本不分示 界種海故 但是一味法界之處 是故法界海印法性同一量也.”

40) 『大方廣佛華嚴經』卷26(『大正藏』9, p.567上); 『大方廣佛華嚴經』卷36(『大正藏』9, p.629上).

체대해하지(影現一切大海河池)⁴²⁾의 형태로 각각 60권본『화엄경』 「십지품」, 「보왕여래성기품」, 「입법계품」에 나타나는 용어로서 주로 ‘물에 비치는 그림자’를 의미한다.

‘유운’오중해인의 7언30구 배석은 또한 근기별 득입(得入)이라는 수행론적 입장을 부연하고 있다. 이 도인에 의거하여 만약 상근기라면 바로 증분에 들어가고 만약 중근기라면 ‘진성’ 이하의 교분 가운데 능히 들어갈 수 있으며 만약 하근기라면 ‘행자’ 이하의 수행방편 가운데 비로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다.⁴³⁾ 즉 도인에 의거한 삼종 근기론을 펼침으로써 반시를 깨달음의 장으로 규정하는 것이다. 『법계도』가 자체적으로 7언30구를 자리행·이타행·수행의 삼문 수행 중심 구도로 배석한 것과⁴⁴⁾ 일맥상통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유운’오중해인에서 7언30구 가운데 유독 ‘득이익4구’를 해인으로 배석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화상지의’오중해인에서 제5중해인으로 배석한 이타행4구 중의 ‘득이익’과 결부시켜 설명한 이색적인 주장도 있다. 즉 “세 번째 오중해인의 제5중해인은 중생이 근기 따라 얻는 이익을 말하는데 이것은 심천이 있는 소류소목의 근기이다. 그런데 두 번째 오중해인에서 제5중으로 분류하지 않은 『법성계』의 마지막 4구는 증분을 기준으로 하면 법성의 자리이고, 연기분을 기준으로 하면 진성의 자리이다”라는 것이다.⁴⁵⁾ 하지만 두 오중해인은 작자도 다르고 양자의 ‘득이익’도 각기 해석과 원문이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논리상의 비약일 수밖에 없다. ‘유운’오중해인에서 ‘득이익4구’를 해인으로 배석하지 않은 이유는 그 내용이 수행과 연관된 근기론과 관계없기 때문이다.

41) 『大方廣佛華嚴經』卷34(『大正藏』9, p.617上).

42) 『大方廣佛華嚴經』卷55(『大正藏』9, p.748上).

43) 『法界圖記叢髓錄』卷上1(『韓佛全』6, p.775中), “依於此印 若是上根 直入訂分 若是中根 眞性下教分之中 而能得入 若是下根 於後行者 下修行方便之中 方始得入也.”

44)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pp.285-289.

45) 이미선(정우), 앞의 논문, p.209.

2. 『대기』의 근기론

『대기』는 ‘유운’오중해인의 7언30구 배석에 의거하여 고유의 근기론을 펼치고 있다. 우선 『법계도』 제명 중 ‘합시일인’을 엄사오중해인 가운데 세 번째 불외향해인에 배석하고, 다시 ‘시’는 보현기, ‘인’은 불외향심으로 주기하였다. 그리고 불외향심인(佛外向心印)이 보현대기내향심두(普賢大機內向心頭)와 그윽하게 합쳐지기 때문이라고 해석하였다.⁴⁶⁾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대기』는 ‘유운’오중해인의 제3중해인을 ‘보현대인의 경계[普賢大人之境]’로 규정하고,⁴⁷⁾ 보현으로써 근기를 삼는다고 하였다.⁴⁸⁾ 『법계도』에서 총론상의(總論上意)로 배석한 연기분 제14구 ‘십불보현대인경’이 비록 연기분에 위치하지만 증분과 교분의 ‘통합 결론[通結]’이며 연기분은 보현대인경이라고 간주한 것이다.⁴⁹⁾ 그리고 보현은 팔회 가운데 ‘교화를 돕는 뜻[助化之義]’을 기준으로 하면 근기라고 말하지 않고 제3중해인에서 비로소 근기가 된다는 것이며,⁵⁰⁾ 보현기만이 자신의 본식(本識)이 오해(五海)의 근원임을 증득한다고 강조하였다.⁵¹⁾

『대기』는 연기체의 진성을 본분종(本分種)을 매개로 한 오해로 규정하였다. 표훈의 해석을 빌어 진성의 ‘진’을 무주본법(無住本法), ‘성’을 본분종으로 규정하고, 본분종에 대한 경문의 출처로서 초회과지(初會果地)인 오해를 지목한 것이다.⁵²⁾ 하지만 『대기』에는 본분종에 대한 별도의 설명이 보이지 않는다. 『대지도론』에서는 법성을 본분종으로 명명하고, 황석(黃石)에는 금성(金性), 백석(白石)에는 은성(銀性)이 있는 것과 같이 일체 세간법 중에는 모두 열반성

46) 『法界圖記叢錄』卷上1(『韓佛全』6, p.768中), “合詩一印 配佛外餉海印 謂詩表普賢機 印表佛外向心 佛外向心印 冥合普賢大機內向心頭故也.”

47) 上同(『韓佛全』6, p.778上), “第三重海印 正是普賢大人之境也.”

48) 上同(『韓佛全』6, p.788上), “彼第三重 則是不共別教故 但以普賢方爲機也.”

49) 上同(『韓佛全』6, p.785上), “理事冥然等者 通結訂教二分大意耶 唯教分耶 答一云通結也 謂下句云十佛普賢大人境故 一云唯結教分.”

50) 上同(『韓佛全』6, p.788上), “普賢有二義 若約八會助化之義 不云機也 於第三重方爲機也.”

51) 上同(『韓佛全』6, p.778上), “唯普賢機 得自本識 是五海之源.”

52) 上同(『韓佛全』6, p.778上), “訓德意則眞者 無住本法也 性者 本分種也 本分種者 若指文處 初會果地五海也.”

(涅槃性)이 있다고 설하였다.⁵³⁾ 이에 따르면 『대기』는 진성을 ‘무주본법의 법성’으로 해석한 표훈의 견해를 따르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만약 상근기의 사람이라면 바로 증분에 의지하여 ‘자기의 몸과 마음[自身心]’이 곧 바로 법성임을 증득하지만, 증득한 곳이 이름과 모습이 끊어졌기 때문에 중·하근기의 사람은 믿어서 증득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므로 이들을 위해 오해가 너의 본식의 근원이라고 설함으로써 자신심이 법성임을 증득하게 한다고 해석하였다.⁵⁴⁾

오해는 60권본 『화엄경』 「노사나불품」에서 보현보살이 삼매 중에 ‘부처의神通력을 받들어[承佛神力]’ 관찰한 다섯 바다를 말한다.⁵⁵⁾ 『대기』도 ‘지상과 지(至相果地)’⁵⁶⁾로 표현했듯이 오해라는 용어는 지엄이 『대방광불화엄경수현분제통지방귀』(이하 『수현기』)에서 사용한 ‘오해십지(五海十智)’에서 비롯되었다.⁵⁷⁾ 『수현기』는 상기 경문을 본분(本分)을 밝히는 것으로 주석하고,⁵⁸⁾ 구체적으로 정중분의 답문을 둘로 나누어 오해를 관하여 그 본분을 밝히는 것과 십지를 밝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⁵⁹⁾ 『화엄경내장문등잡공목』(이하 『공목장』) 「관오해설십지문수립오해장(觀五海說十智文首立五海章)」에서는 오해 등의 법이 십지에 들어가 설해지는 이유를 ‘이치는 전기를 바라보고[理望前機]’ 스스로 드러날 수 없어서 ‘지혜[智]’로 말미암아 드러난다고 설하였다.⁶⁰⁾ ‘전기’의 ‘기’는 보현으로 재해석되기도 한다.⁶¹⁾ 동·별이교판의 경전적 연원을 오해십

53) 『大智度論』卷32(『大正藏』25, p.298中), “法性名為本分種 如黃石中有金性 白石中有銀性 如是一切世間法中 皆有涅槃性.”

54) 『法界圖記叢髓錄』卷上1(『韓佛全』6, p.778上), “若上根人 直依訂分 得自身心 正即法性 然此訂處 絕名相故 中下之人 未能信得 故說五海是汝本識之源 由是前機得自身心即是法性.”

55) 『大方廣佛華嚴經』卷3(『大正藏』9, p.409上), “爾時 普賢菩薩承佛神力 觀察一切諸世界海 一切眾生 法界業海 一切眾生 欲樂諸根海 一切三世諸佛海已.”

56) 『法界圖記叢髓錄』卷下1(『韓佛全』6, p.825中), “然依至上果地 五海十智之義 則奮迅定中起此言說也.”

57)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卷1(『大正藏』35, p.20上), “準下五海十智答文有五子段.”; 左同(『大正藏』35, p.41中), “初會觀圓明五海十智以起說.”

58) 上同(『大正藏』35, p.20中), “五爾時普賢菩薩承佛神力已下明本分.”

59) 上同(『大正藏』35, p.22中), “第五正本宗答文大分為二 初觀五海等明其本分 二明十智.”

60)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卷1(『大正藏』45, p.539上), “五海等法 入十智說 問何故爾也 答理望前機 不得自顯 由智顯也.”

지로 보고 있는 유스키 료에(湯次了榮)는 오해 가운데 법계업해(法界業海)는 일체 법문의 근본으로서 동·별이교를 갖추었고 중생욕락제근해(衆生欲樂諸根海)는 천차만별의 근기를 포섭하여 상·중·하 삼종근기와 보별이기(普別二機)로 축약하였다.⁶²⁾

그리고 『대기』는 만약 제4중해인을 기준으로 하면 위광·선재가 모두 정장정(淨藏定) 중에 이익을 얻는 근기로서 다만 선정 안에서 얻는 이익을 선정 밖에서 설하여 보일 뿐이라고 전제하고,⁶³⁾ 제4중해인에서는 동교와 별교를 갖추기 때문에 위광·선재를 근기로 삼는다고 해석하였다.⁶⁴⁾ 더불어 위광과 선재가 각각 얻는 화장세계과(華藏世界果)와 진수법문(塵數法門) 등을 ‘돌아가야 할 본래의 자리[還本際]’로 규정하였다.⁶⁵⁾ 정장정은 초회에서 보현이 듣게 되는 여래정장삼매를 가리키며, 위광·선재는 모두 보현으로부터 가르침을 받는 인물들이다. 즉 위광은 80권본 『화엄경』 「노사나불품」에 등장하는 대위광태자(大威光太子)로서 60권본 『화엄경』의 보장엄동자(普莊嚴童子)를 말하며, 보현보살로부터 가르침을 받아 견불문경(見佛聞經)하게 되고, 선재는 보현의 교시(敎示) 아래 구도행을 펼치는 「입법계품」의 주인공이다.⁶⁶⁾ 제4중해인에서 보현은 『대기』가 밝힌 보현의 두 가지 뜻 가운데 근기가 아니라 위광과 선재의 교화를 돕는 뜻이 되는 셈이다.

『대기』는 또한 『법계도』 수행방편의 ‘행자(行者)’를 제5중해인을 기준으로 소류소목기(所流所目機)라고 주기하였으며,⁶⁷⁾ ‘망상’을 소류소목 등에 통하는 것으로 주기하면서 ‘하교의 사람[下敎之人]’이 ‘낮은 가르침의 자취[自敎跡]’를 고수하여 집착해서 구경을 삼기 때문에 이 미혹한 집착을 기준으로 모두 망상

61) 高峯了州, 『華嚴孔目章解說』(奈良: 南都佛敎研究會, 1964), p.16.

62) 湯次了榮, 『華嚴大系』(東京: 國書刊行會, 1916), pp.325-326.

63) 『法界圖記叢錄』 卷上1(『韓佛全』6, p.788上), “若約弟四重 則威光善財皆是淨藏定中得益之機也 但是定內所得之益 於定外說示耳.”

64) 上同(『韓佛全』6, p.788上), “於弟四重 具同別敎故 以威光善財而爲機也.”

65) 上同(『韓佛全』6, p.788中), “□於弟四重內 以何爲本際耶 答威光善財所得花藏世界果 及塵數法門等是也.”

66) 佐藤厚, 앞의 논문, 「新羅高麗華嚴敎學の研究-均如 『一乘法界圖圓通記』를 中心として-, p.272.

67) 『法界圖記叢錄』 卷上1(『韓佛全』6, p.788中), “言行者者 約弟五重 則所□□機也.”

이 된다고 해석하였다.⁶⁸⁾ 소류소목기는 결국 하교의 사람으로서 삼승 이하의 근기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행자인 소류소목기가 ‘자기의 몸과 마음이 비로자나불의 체[自身心舍那體]’임을 알기 때문에 ‘환본제’라고 말한다고 해석하였다.⁶⁹⁾ 화장세계과와 진수법문을 위광·선재의 환본제로 규정한 제4중해인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대기』 스스로 ‘칠중문답(七重問答)’⁷⁰⁾으로 명명한 『법계도』 석문의 중 중분과 교분의 무분별을 주요 테마로 한 7가지 문답⁷¹⁾ 가운데 제1문답의 ‘능전소전개재연중(能詮所詮皆在言中)’에 대한 해석에서는, 보현이 소류소목기를 위하여 무생무명처(無生無名處)에서 ‘여러 가지 이름[種種名]’으로 제목을 붙이니 이때에 능전과 소전이 차별을 이루기 때문에 이 자리를 기준으로 ‘개재연중’을 말했다고 하였다.⁷²⁾ 제5중해인에서도 보현은 근기가 아니라 소류소목기의 교화를 돕는 뜻이 되고 있다.

소류와 소목에 대해서 『대기』는 『법계도』 석문의 중 ‘오승총시입일승섭이 일승소류일승소목일승방편고(五乘總是入一乘攝以一乘所流一乘所目一乘方便故)’를 주기하면서 그 정의를 내리고 있다. 소류란 마치 백천(百川)이 저 대해(大海)로부터의 흐름 아닌 것이 없듯이, 삼승·오승 등 일체 모든 법이 본래 일승으로부터 흘러서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소목이란 삼승을 기준으로 하면 안목(眼目)의 뜻이 되고, 일승을 기준으로 하면 명목(名目)의 뜻이 된다는 것이다. 삼승 가운데 안목이 된다는 것은 그 혼습한 일체 모든 법이 온전히 일승보법이기에 때문에 이로써 곧 화엄보법에 들어가는 안목이 되고, 일승 가운데 명목이 된다는 것은 만약 무생불법(無生佛法)을 기준으로 하면 명목일수

68) 上同(『韓佛全』6. p.788中), “言妄想者 通所流所目等也 謂下教之人 守自教跡 執爲究竟故 約此迷執 惣爲妄想.”

69) 上同(『韓佛全』6. p.788中), “此行者等 知自身心即舍那體 故云還本際也.”

70) 『法界圖記叢髓錄』 卷下1(『韓佛全』6. p.825上), “問所謂五乘等法 爲是能詮教法耶 爲是所詮之義耶 等者 此下七重問答.”

71)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p.4上-5中).

72) 『法界圖記叢髓錄』 卷下1(『韓佛全』6. p.825上19-23), “問此能詮所詮皆在言中者 立在哪處云耶 答普賢爲所流所目之機 於無生無名處 以種種名題目 於此時中 能詮所詮 成差別故 約此處云 皆在言中也.”

없지만, 근기의 연을 위해서 모든 명자제목(名字題目)으로써 보인 것이라고 부여하였다.⁷³⁾

3. 『대기』의 교판론

『대기』는 ‘유운’오중해인의 7언30구 배석에 의거하여 불공별교·여의교·동교의 삼교판론을 펼치고 있다.⁷⁴⁾ 우선 제3중해인을 불공별교로 해석하였다. ‘불공’은 『화엄오십요문답』 「일승분제의(一乘分齊義)」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일승교를 공교와 불공교로 구분하고 『화엄경』과 같이 문문구구 모두 일체를 갖춘 원교일승의 교설은 불공교, 소승·삼승교는 공교로 분류하였다.⁷⁵⁾ 공교·불공교는 『수현기』의 동교·별교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⁷⁶⁾ 이에 따른다면 공교는 동교, 불공교는 별교와 유사한 개념이므로, 불공별교는 별교를 더 강조하기 위해서 도입된 개념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공은 ‘제4중해인·제5중해인과 같이 하지 않는’이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포하고 있다.

제4중해인은 여의교로 해석하였다. 즉 제4중해인에는 동·별이교가 갖추어졌다고 해석한 것이다. 만약 바로 일도주인(一道朱印)을 기준으로 논하면 무차별이기 때문에 별교, 굴곡을 기준으로 논하면 차별이기 때문에 동교 중의 ‘근기를 쫓는 뜻[逐機之義]’이라고 전제하고, ‘축기굴곡의 주인’인 까닭에 여의교라고 부른다는 것이다.⁷⁷⁾ 동교와 별교를 아우르는 여의교는 이타행4구 가운데

73) 上同(『韓佛全』6, p.824中), “言所流者 猶如百川 無不從彼大海而流 三乘五乘等 一切諸法 無不從本一乘而流成也 所目者 約三乘則爲眼目之義也 約一乘則爲名目之義也 言三乘中爲眼目者 其所熏習一切諸法 全是一乘善法故 以此即爲入花嚴善法之眼目也 一乘中爲名目者 若約無生佛法 則不可名目 然爲機緣 以諸名字題目而示也.”

74) 『대기』의 교판론에는 ‘유운’오중해인에 의거한 삼교판론 이외에도 오교판, 이승삼교판 등을 시설하고 있다.

75) 『華嚴五十要問答』 初卷(『大正藏』45, p.522中), “問一乘教義分齊云何 答一乘教有二種 一共教 二不共教 圓教一乘所明諸義文句句皆具一切 此是不共教 廣如華嚴經說 二共教者即小乘三乘教 名字雖同意皆別異 如諸大乘經中廣說.”

76)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東京: 春秋社, 1977), p.438.

77) 『法界圖記義髓錄』 卷上1(『韓佛全』6, p.785中), “第四重內 具同別二教 若直約一道朱印而論 即無差別故 是別教 若約屈曲而言 是差別故 即同教中逐機之義也 是故逐機屈曲之朱印 故云如意教也”.

제2구인 ‘번출여의부사의(繁出如意不思議)’에서 차용한 용어로서 법계도인의 독창적 해석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판 개념이다.

제5중해인에 대해서는 동교를 기준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별교의 뜻으로써 ‘파식망상필부득(叵息妄想必不得)’을 해석하면 ‘망상을 쉬지 않는다[不息妄想]’고 말해야 하므로 만약 망상을 쉰다면 ‘반드시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必不得故]’가 되지만 아래 구절에 이미 ‘수분득자량(隨分得資糧)’을 말했다기 때문에 동교를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마땅하다[宜也]’는 것이다. 또 이것이 인연관이기 때문이라고 부연하였다.⁷⁸⁾ 『대기』가 제5중해인을 교판으로는 동교,⁷⁹⁾ 관법으로는 표훈의 오관석에 준한⁸⁰⁾ 인연관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대기』는 제5중해인의 동교를 소목별교로도 지칭하였다. 『법계도』 석문의에서 ‘행자’에 대하여 별교일승을 기준으로 견문일승보법 이후 미만원증보법 이전으로 해석한 것은⁸¹⁾ 불공무주별교(不共無住別教)⁸²⁾가 아니라 소목별교를

78) 上同(『韓佛全』6, p.788中24-下4), “一云以別教義 釋此文者 應云不息妄想 若息妄想 必不得故也 然而下句 既云隨分得資糧故 約同教釋者宜也 以此是其因緣觀故.”

79) 佐藤厚, 앞의 논문, 「新羅高麗華嚴教學の研究-均如『一乘法界圖通記』を中心として-, p.273에서 제5중해인에 상응하는 가르침은 소류소목기에 해당하는 가르침, 즉 오교판으로 말하면 소승교로부터 둔교까지의 가르침일 것이라고 추측하였다. 하지만 『대기』는 제5중해인을 동교로 명시하였으며, 제3중해인의 불공별교, 제4중해인의 여의교와 더불어 ‘유운’오중해인에 의거한 삼교판을 시도한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또한 p.271에서 아래 표와 같이 교판론과 근기론에 업사오중해인을 배석하고, 제5중해인에 해당하는 교판을 생략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머리말에서 지적했듯이 『대기』 교판론과 근기론의 준거는 업사오중해인이 아니고 ‘유운’오중해인이다.

五重海印	根機	教
忘像海印	X	X
現像海印	X	X
佛外向海印	普賢	無住別教
普賢入定觀海印	威光・善財	同別二教
普賢出定在心中及現語言海印	所流所目的機	X

80) 『法界圖記叢錄』 卷上1(『韓佛全』6, p.775下), “後諸句緣起觀因緣觀也.”

81)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4上), “初門行者 謂見聞一乘法已去 未滿證法已還 是此約別教一乘說也.”

82) 불공무주별교는 제3중해인의 교판인 불공별교의 이칭(異稱)이며 무주는 표훈의 오관석에서 연기분 14구에 배석한 무주관에서 비롯되었다. 연기분 14구는 ‘유운’오중해인에서 제3중해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기준으로 말한 것뿐이라고 단정하였다.⁸³⁾ 여기서 소목은 일승을 기준으로 한 명목을 가리킨다. 또한 제5중해인은 ‘삼매 밖[定外]’이라고 규정하였다. 즉 ‘견문일승보법’을 제5중해인에 서서 정의견문(定外見聞)을 기준으로 말했을 뿐이라는 것이다.⁸⁴⁾

IV. ‘화상지의’오중해인

『대기』는 ‘해인’을 중분과 교분에 모두 통하지만 교분에서 밝힐 뿐이라고 주기하고,⁸⁵⁾ ‘유운’오중해인에서 제4중해인으로 배석한 『법계도』 이타행4구를 재차 오중해인으로 분배하였다. 이 오중해인에 대하여 『대기』는 ‘스님의 뜻[和尚之意]’이 제4중해인 중의 ‘해인’이 한결같이 제4중에만 해당되지 않아서 이 가운데 다시 분배한다고 밝히고 있다.⁸⁶⁾ 『대기』는 이에 대한 교학적 근거로 해인에 관한 『법계도』 석문의 중 “끝까지 청정하여 맑고 밝아서 삼중세간이 그 가운데 나타난다”⁸⁷⁾를 들고 있다.

‘화상지의’오중해인으로 분배하면 이타행4구의 첫 2구는 초이해인(初二海印), 제3구는 제3해인, 제4구는 후이해인(後二海印)이라는 것이다.⁸⁸⁾ 세부적으로 제1구는 영리해인(影離海印), 제2구는 영현해인(影現海印)이고, 제3구는 제3중해인으로서 능화불이 ‘십보법의 보배를 비 내려[雨十普法之寶]’ 보현기를 이익되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제4구 가운데 ‘중생수기(衆生隨器)’는 제4중해인에서 여의교의 주인이 근기의 굴곡에 들어맞는 것이고 ‘득이익(得利益)’은 제5

83) 『法界圖記叢髓錄』卷上1(『韓佛全』6, p.788下), “問下文釋行者云 行者者 見聞一乘普法已去 乃至此約別教一乘說也 何故此云同教耶 答此約所目別教云耳 非是不共无住別教.”

84) 上同(『韓佛全』6, p.788下), “所云見聞一乘普法者 立在第五重海印 約定外見聞云耳.”

85) 上同(『韓佛全』6, p.786中), “海印者 通訂教二分故 明於教分耳.”

86) 上同(『韓佛全』6, p.786中), “和尚之意 此中海印 非唯一向當第四重 是以此中更分配也.”

87)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3下), “究竟清淨 湛然明白 三種世間於中顯現.”

88) 『法界圖記叢髓錄』卷上1(『韓佛全』6, p.786中), “約此第四重四句 更以五重海印分配 則初二句如次配初二海印 次一句第三海印 次一句後二海印也.”

중해인에서 언설의 법을 일으켜 근기들로 하여금 신·해·행·증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⁸⁹⁾ 『대기』는 증분과 교분에 모두 통하는 것으로 해석한 해인에 근거하여 이타행 4구를 이른바 7언30구의 또 다른 축약으로 간주한 것이다.

제3중해인에서 보현기를 이익되게 하는 우보(兩寶)로서의 십보법은 『대기』에서 해인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해인 중에 나타나는 삼세간을 십문(十門)·십법(十法)으로 보고 이를 각각 십전유·십보법으로 지목하였기 때문이다.⁹⁰⁾ 이는 『법계도』 내의 교학으로 삼세간을 해석한 것이다. 『법계도』에서 십보법이라는 용어는 발견되지 않고 대신 ‘일승보법(一乘普法)’이란 용어가 두 차례 사용되고 있으며,⁹¹⁾ 바로 인·법·인·과·해·행·이·사·교·의(人·法·因·果·解·行·理·事·教·義) 등의 일체제법을 가리킨다.⁹²⁾ 『대기』는 또한 다라니이 용을 주석하면서도 교판의 입장에서 십보법을 언급하였다. 만약 일승에서라면 법을 따라서 인(因)을 변별하기 때문에 십보법 가운데 ‘하나의 법을 들에 따라서[隨學一法]’ 덕용자재인 제도 갖추고 인과도리인 용도 갖춘다고 하였다.⁹³⁾ 십보법의 세목은 논서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⁹⁴⁾ 『대기』는 「보법장」, 즉 『공목장』 「초회십문료간일경의(初會十門料簡一經意)」의 오대십법(五對十法)과⁹⁵⁾ 『탐현기』 현담의 십대이십법(十對二十法)을⁹⁶⁾ 소개한 뒤, 이 둘은 단지 개합

89) 上同(『韓佛全』6, p.786中-下), “初句影離海印 次句影現海印 故云繁出如意等 次句第三重 能化之佛 兩十普法之寶 益善賢機也 後句於第四重 如意教之朱印 稱機屈曲 故云衆生隨器也 於第五重 起言說法 令機信解行訂 故云得利益也。”

90) 上同(『韓佛全』6, p.771中), “此海印中所現三世間十門十法也 謂下文十錢喻及十普法。”

91)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4上); 左同(『韓佛全』2, p.8中).

92) 上同(『韓佛全』2, p.4上), “如五乘說 人法因果解行理事教義等 一切諸法 准例如是.”;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p.8上), “一同時具足相應門於中有十相 謂人法理事教義行因果.”

93) 『法界圖記叢錄』 卷上1(『韓佛全』6, pp.779下-780上), “一中一切下 欲現大緣起中 因果道理及德用自在之義 故有此二句也···(中略)···若一乘中 隨法辨因故 十普法中 隨學一法 具體具用 體則德用自在 用則因果道理也.”

94) 앞의 책, 전해주 역, p.47의 각주 38) 참조.

95)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 卷1(『大正藏』45, p.536下), “初會如是我聞首料簡下文所目之義 約有十門 謂人及法理事義文解行因果.”

96) 『華嚴經探玄記』 卷1(『大正藏』35, p.123中), “就初門中有十義具足 一教義具足 二理事 三境智 四行位 五因果 六依正 七體用 八人法 九逆順 十應感具足.”

(開合)의 차이일 뿐 의미의 가감은 없다고 한다.⁹⁷⁾

제4중해인에 서서 일으킨 질문이라고 해석한 『법계도』 설인문상(說印文相)의 “왜 인문은 ‘한 길[一道]’인가”⁹⁸⁾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⁹⁹⁾ ‘화상지의’ 오중해인의 제4중해인을 지칭한다고 추정한다. 왜냐하면 “이미 근육에 따라서 굴곡을 이루었는데 왜 한 길이라고 말하는가”¹⁰⁰⁾라고 다시 해석했기 때문이다.

V. 맺음말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오해하거나 간과했던 사항들을 시정하고 소략한 부분을 보완하여 오중해인 전체를 다시 고찰하였다.

『대기』가 차용한 오중해인의 명칭은 제1중·제2중·제3중, 혹은 첫째·둘째·셋째가 아니고 작자를 기준으로 한 엄사오중해인, ‘유운’ 오중해인, ‘화상지의’ 오중해인이다. ‘유운’ 오중해인의 영불현해인 역시 『법계도』 반시의 ‘증분 중 2구’, ‘증분 중 1구’가 아닌 증분 제1구에, 영현해인은 ‘증분 중 나머지 2구’, ‘증분 중 나머지 3구’가 아닌 증분 제2구에 배석되었다. 또한 반시 7언30구는 엄사 오중해인이 아닌 ‘유운’ 오중해인으로 배석되었다. 그리고 엄사오중해인은 『대기』의 법계도관으로서 신림의 『법계도』 제목 해석과는 별개의 사안이다.

엄사오중해인은 『법계도』의 형식적 체제를 해석하여 『대기』의 법계도관을 드러내기 위해 차용한 교학이다. 엄사오중해인은 망상해인으로부터 보현입정 관해인까지와 보현출정재심중급현어언해인의 둘로 나눌 수 있다. 전자가 불가 설의 세계라면, 후자는 가설의 세계이다. 엄사오중해인은 결국 증분을 네 단계

97) 『法界圖記叢錄』 卷下2(『韓佛全』6. p.842上-中), “於中有十門 所謂人法理事等者 依善法章 唯東五對十法不同 大疏等十對二十法也 但開合耳 義無加減也.”

98) 『法界圖記叢錄』 卷上2(『韓佛全』6. p.793上), “何故印文唯有一道者 立在第四重海印起此問也.”

99) 앞의 책, 전해주 역, p.230 각주 23)에서 제4중해인을 굴곡을 나타내는 오십사각에 배대한 엄사오중해인의 보현입정관해인으로 지목하였지만, 그 보다는 ‘증생수기’를 해석한 ‘화상지의’ 오중해인의 제4중해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100) 『法界圖記叢錄』 卷上2(『韓佛全』6. p.793上), “謂既隨根欲而成屈曲 何故云一道耶 如是問也.”

로 파악한 것으로서 전통적인 화엄 일승의 증·교분 이중 체계를 오중으로 중층화하였다. 『대기』의 현상해인 해석은 『탐현기』의 ‘형상’에 대한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반면 『법기』의 해석은 『십구장』에서 해석한 현상해인과 일치하며, 기본적으로 『법계도』 총석인의가 그 바탕에 자리하고 있다. 『법기』의 현상해인은 삼중세간 전체에, 『대기』의 현상해인은 불보살의 세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유운’ 오중해인은 반시 7언30구를 배석하고 근기별 득입을 논한 교학으로서 『대기』 고유의 근기론과 교판론의 토대 중 하나가 되었다. 근기론에서는 제3중해인을 보현기, 제4중해인을 위광·선재, 제5중해인을 소류·소목기로 배석하였다. 연기분에 위치한 ‘십불보현대인경’은 증분과 교분의 통합 결론이며, 제3중해인은 보현대인경이라고 간주한 것이다. 하지만 보현은 팔회 가운데 ‘교화를 돕는 뜻’을 기준으로 하면 근기가 되지 않는다. 제4중해인의 위광과 선재, 제5중해인의 소류·소목기는 보현이 교화를 돕는 뜻에서의 근기들이다. 교판론에서는 제3중해인을 불공별교, 제4중해인을 여의교, 제5중해인을 동교 혹은 소목별교로 해석하였다. 불공별교의 ‘불공’은 제4중해인·제5중해인과 함께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동교와 별교를 아우르는 여의교는 ‘번출여의부사의’에서 차용한 용어로서 법계도인의 독창적 해석에서 비롯된 새로운 교판 개념이다. 소목별교의 ‘소목’은 일승을 기준으로 한 명목을 가리킨다. 또 제5중해인은 ‘삼매 밖’이라고 규정하였다.

‘화상지의’ 오중해인은 ‘해인’의 해석에 기반을 두고 『법계도』 이타행4구를 7언30구의 또 다른 축약으로 간주하여 오중으로 배석한 교학이다. 제3중해인은 능화불이 보현기를 이의 되게 하려고 ‘십보법의 보배를 비 내리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십보법은 『법계도』에서 일승보법으로 지칭하며, 인·법·인·과·해·행·이·사·교·의 등의 일체제법을 가리킨다. 『대기』는 십전유와 함께 십보법을 해인 중에 나타나는 삼세간으로 규정하였다. 논서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십보법에 대하여 『대기』는 개합의 차이일 뿐 의미의 가감은 없다고 단언하였다. 제4중해인은 여의교의 주인이 근기의 굴곡에 들어맞는 것으로, 제5중해인은 언설의 법을 일으켜 근기들로 하여금 신·해·행·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참고문헌

1. 원전자료

- 『大方廣佛華嚴經』(『大正藏』9)
- 『大方廣佛華嚴經搜玄分齊通智方軌』(『大正藏』35)
- 『大智度論』(『大正藏』25)
- 『法界圖記叢髓錄』(『韓佛全』6)
- 『信心銘』(『大正藏』48)
- 『十句章圓通記』(『韓佛全』4)
- 『華嚴經內章門等雜孔目』(『大正藏』45)
- 『華嚴經探玄記』(『大正藏』35)
- 『華嚴五十要問答』(『大正藏』45)
- 『華嚴一乘法界圖』(『韓佛全』2)

2. 2차자료

<단행본류>

- 고익진, 『한국고대불교사상사』,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1989.
- 김천학, 『균여화엄사상연구-근기론을 중심으로-』, 서울: 은정불교문화진흥원, 2006.
- 전해주, 『의상화엄사상사연구』, 서울: 민족사, 1993.
- 전해주 역, 『법계도기총수록』, 서울: 동국대학교출판부, 2014.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東京: 春秋社, 1977.
- 高峯了州, 『華嚴孔目章解説』, 奈良: 南都佛教研究會, 1964.
- 湯次了榮, 『華嚴大系』, 東京: 國書刊行會, 1916.

<논문류>

- 이미선(정우), 「『대기』의 오중해인에 대한 소고」, 『동아시아불교문화』 제35집,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pp.181-215.
- 木村清孝, 「智嚴と義湘系の華嚴思想-五海印説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教學研究』 21

卷 2號,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1973, pp.323-328.

- 佐藤厚, 「『大記』の五重海印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44卷 2號, 東京: 日本印度學佛教學會, 1996, pp.286-288.
- 佐藤厚, 「新羅高麗華嚴教學の研究-均如『一乘法界圖圓通記』を中心として-」, 博士學位論文, 東洋大學校大學院, 1998, pp.268-275.
- 佐藤厚, 「의상계 화엄학파의 사상과 신라불교에서의 위상」, 『보조사상』 제16집,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1, pp.126-166.

Reconsideration on the Five-fold Ocean Seal Samādhi(五重海印)

Hwang, Seokwang
Executive Advisor
FCNEST Co., Ltd

Five-fold Ocean Seal Samādhi is the highlight of Single Vehicle theory, which inquires into the true meaning of Buddha's teaching on *Avatamsaka sūtra* and a frame of the interpretation of *Dhārma Realm Diagram* (法界圖) in *Daegi*. It's author borrows three types of Five-fold Ocean Seal Samādhi: the one of Chih-Yen (智儼), the one told by someone, and the one followed by the will of the Monk (和尚).

The first reveals the view of *Dhārma Realm Diagram* by interpreting it's formal system. It divides enlightenment division (證分) of traditional Hua-yen thought into four stages.

The second, the interpretation of thirty phrases of seven-word, is the basis of the understanding faculty and doctrinal classification theories. In the former theory, the third Ocean Seal Samādhi is interpreted as Samantabhadra faculty, the fourth as Weykwang (威光)·Sudhana faculties, the fifth as Soryusomok faculty. Because the 14th phrase in dependent arising division (緣起分) is the conclusion from both enlightenment and dependent arising divisions, the third Ocean Seal Samādhi is considered as the boundary of Samantabhadra. He helped Weykwang·Sudhana and Soryu·Somok enlighten. In the latter theory, the third Ocean Seal Samādhi is interpreted as the non-shared and differentiated teaching (不共別教), the fourth as teaching at will (如意教), the fifth as shared teaching (同教) or differentiated teaching for Somok (所目別教). Teaching at will that includes differentiated and

shared teaching is a new doctrinal classification concept. Somok refers to the Single Vehicle-based name.

The last comes from the interpretation of four phrases of altruistic practice (利他行), in which they are regarded as another abbreviation of thirty phrases of seven-word. The third Ocean Seal Samādhi means that Buddha makes the rain fall of ten universal dhārmās for Samantabhadra's benefit. The fourth means that red seal of teaching at will fits the flexion of faculty, The fifth means that various faculties raise faith, understanding, practice, and enlightenment through dhārma of speech.

Keywords

Five-fold Ocean Seal Samādhi of Chih-Yen, Five-fold Ocean Seal Samādhi told by someone, Five-fold Ocean Seal Samādhi followed by the will of the Monk, Samantabhadra, Weykwang·Sudhana, Soryu·Somok, Teaching at will

2020년 01월 27일 투고
2020년 03월 14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23일 게재확정